

부산일부지역 특수업태부들의 사회의학적 조사

부산시 부산진구 보건소

<지도: 김 돈 균* 부교수>

최진해

—Abstract—

A Study on the Sociomedical Status of Prostitutes in Busan Area

Jin Hae Choi

Busanjin Gu Public Health Center, Busan City

<Directed by Don Kun Kyim, * M.D.>

The author have performed, from June to July 1976, a sociomedical study on the 314 prostitutes which was engaged in tourism in Dongrae, Busan.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Age distribution was from 20 years old to 34 years old and the highest as 36.6% was 23—25 years old group. Most of the respondents as 95.2% were under 31 years old group.
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educational level showed that the group below the graduated primary school was 47.2%, middle school 29.3% and high school 57.0% in that order.
3. By the occupation before be ruined, none was 34.5%, waitress at saloon 24.2%, hostess 14.3%.
4. By distribution of birth place, most of the respondents as 64.0% were Gyeongsang Do(37.9%) and Busan City (26.1%).
5.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family status showed that only mother was highest as 43.9% and 82.2% of respondents have been supported their family.
6. Monthly incomes of respondents were distributed from 50,000 Won to 250,000 Won, and 50,000—100,000 Won group was the highest as 46.2%.

In monthly sundry expenses, 20,000—30,000 Won group was the highest as 27.1%.

7. Monthly supporting expenses to their family were distributed from 10,000 Won to 50,000 Won and the highest as 26.7% was 10,000—20,000 Won group.

Savings per month were distributed from 10,000 Won to 60,000 Won and 50,000—60,000 Won group was the highest as 22.3%.

8.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tatus of luxury showed that experiences of drinking was 20.4% and smoking was 55.7%.
9. By motive of falling into the ruin, economical causes was 41.7%. Most of the respondents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교실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Busan University

as 95.0% expected under 3 years in prearranged period of their occupation.

10. By number of monthly entertainment, 5-10 persons as 58.0% was the highest.

1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tatus of venereal disease and pulmonary tuberculosis showed that positive of gonorrhoea was 8.0%, syphilis 1.6%, and pulmonary tuberculosis was 1.6%.

I. 서론

중요 5대 성병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 성병성임파육아종 및 서계성육아종으로서 이들은 각각 그 원인균과 병리학적 소견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성교 또는 기타 접촉양식으로 전파되는 공통적인 전파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종류의 질병들을 통합하여 성병이라고 하고 있으며¹⁾ 그 중에서도 특히 매독과 임질은 발생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성병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매독과 임질의 만연은 1943년경에 최고에 달하였으나 Mahoney등²⁾이 초기매독과 임질에는 페니실린이 효과적이라는 임상보고가 있는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하여³⁾ 기타 여러나라에서^{4,5)} 급격히 감소되어 지고 있었으나 1970년 이후 미국에 있어서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⁶⁾. 우리나라의 성병 추이를 보면 1950년의 6.25동란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임질은 1957년, 매독은 1955년에 각각 정점에 달하였고 그후 점차로 감소 또는 격감하였다고 한다⁷⁾. 그러나 최⁸⁾, 양⁹⁾등에 의하면 1963년 이후 매독환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같은 급증의 원인은 구미각국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동성애, 청소년들의 성개방관 또는 성교방법의 변태성등에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병감염원이 율락여성 또는 매음부라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문제는 경시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¹⁰⁾. 따라서 정부에서는 성병전파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접객특수업태부와 성병을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¹¹⁾.

성병 매개자인 율락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성병관리는 개인적으로는 불임증, 실명 기타 후유증으로 인한 불구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병만연을 예방할 수 있는 2중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부산 동래지역의 성병관리에 기여하고 또한 정부시책의 일환책으로서 동래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사회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얻은바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976년 6월 1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래지역의 관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업태부(일명 관광점대원) 31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동래지역에서 관광객을 접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자질있는 관광점대요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선발전형을 실시할 때 건강진단과 동시에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갖고 직접면담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연령, 교육정도, 전직업, 출신도명, 가정환경, 부양가족수, 월수입, 월간잡비지출액, 월간가정지원액수, 채무의 유무, 기호품, 특수업태부로서의 동기, 특수업태부로 종사할 예정기간, 특수업태부의 경력, 월간접대인원수, 성병 및 폐결핵 감염 여부등 총 17개 항목이었다.

성병검사에 있어서 임질과 매독에 감염된 자의 검사요령과 판정기준은 보건사회부가 발행한 1976년도 성병관리사업지침서¹²⁾에 준하였다.

III. 조사 성적

1. 연령별 분포

특수업태부들의 연령은 최저 20세에서 최고 34세 사이였고 이들의 연령별 구성은 23~25세군이 36.6%로서 가장 고율을 점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26~28세군으로 32.8%, 20~22세군은 16.6%, 29~31세군은 9.2%, 32~34세군 4.8%의 순위였으며 20~31세의 젊은 층이 95.2%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 참조).

Table 1.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ge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20-22	52	52	16.6	16.6
23-25	115	115	36.6	53.2
26-28	103	103	32.8	86.0
29-31	29	29	9.2	95.2
32-34	15	15	4.8	100.0
Total	314	314	100.0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Educational Level

Educational Level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Primary school	Dropping out	4	1.3	1.3
	Graduated	144	45.9	47.2
Middle school	Dropping out	33	10.5	57.7
	Graduated	92	29.3	87.0
High school	Dropping out	23	7.3	94.3
	Graduated	18	5.7	100.0
Total		314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Past Occupation

Occupation	Numer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Productive worker		11	3.5
Waitress at saloon		76	24.2
Waitress at coffee shop		34	10.8
Hostess		45	14.3
Hair-dresser		11	3.5
Housemaid		29	9.2
None		108	34.5
Total		314	100.0

2. 교육정도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졸업이 45.9%, 중학교 졸업군은 29.3%, 고등학교 졸업군은 5.7%에 불과하였으며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경력자가 가장 많았다(표2 참조).

3. 전직업

특수업태부로 전락되기 전의 직업상황은 무직이 34.5%, 싸롱접대부 24.2%, 호스레스 14.3%, 다방종업원 10.8%, 식모 9.2%, 미용사 3.5%로 무직자 34.5%를 제외한다면 모두가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력을 소지한 자들이었다(표 3 참조).

4. 출신도별

출신도별 분포상태는 경상도(경남, 경북) 출신이 37.9%로 수위를 점하고 다음이 부산으로 26.1%, 서울 및 경기도가 15.3%, 전라도(전남, 전북) 10.8%, 충청도(충남, 충북) 8.3%, 강원도 1.3%, 제주 0.3%의 순위

Table 4.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Birth Place

Province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Seoul, Gyeong-gi		48	15.3
Busan City		82	26.1
Gyeongsang		119	37.9
Jeonra		34	10.8
Chungcheong		26	8.3
Gang-weon		4	1.3
Jeju		1	0.3
Total		314	100.0

Table 5.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Family Status

Status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Mother and Father		75	23.9
Only Father		7	2.2
Only Mother		138	43.9
Only Brothers		19	6.1
Only Sisters		30	9.6
Brothers and Sisters		11	3.5
Perents and Brethren		34	10.8
Total		314	100.0

로 특수업태부들의 64.0%가 부산 및 경상도 출신이었다(표 4 참조).

5. 가정환경

가족사항으로는 편모슬하에 있는 자가 43.9%, 양친

모두 있는 자가 23.9%, 양친과 형제들이 있는 군은 10.8%, 자매들만이 있는 군은 9.6%, 부친만이 있는 자는 2.2%에 불과하였다(표 5 참조).

6. 부양가족

자기들 수입으로 직접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가족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군이 20.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들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 군과 부양가족이 3명인 군 그리고 5명인 경우는 각각 17.8%였고 4명을 부양하고 있는 군은 9.6%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었다.

Table 6.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ize of Dependent Family

No. of Dependent Family	No.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None	56	17.8	17.8
1	52	16.6	34.4
2	64	20.4	54.8
3	56	17.8	72.6
4	30	9.6	82.2
5	56	17.8	100.0
Total	314	100.0	

7. 월간수입

월간수입이 5만원~10만원인 자는 46.2%, 10만원~15만원이 28.7%, 15만원~20만원 17.8%, 20만원~25만원 2.5%, 5만원이하 4.8%로 월간 수입액은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폭 넓은 분포를 하고 있었다(표 7 참조).

Table 7.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Monthly Income (Unit:1,000 Won)

Monthly Income	No.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Under 50	15	4.8	4.8
50-100	145	46.2	51.0
100-150	90	28.7	79.7
150-200	56	17.8	97.5
200-250	8	2.5	100.0
Total	314	100.0	

8. 월간 잡비지출

1개월간에 지출되는 잡비가 2~3만원인 자는 27.1%, 1~2만원 19.1%, 3~4만원 16.9%, 1만원이하와 4~5만원인 자들은 각각 15.6%이고 5만원 이상인 경우는 5.7%였다(표 8 참조).

Table 8.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Monthly Sundry Expenses (Unit: 1,000 Won)

Sundry Expenses	No.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Under 10	49	15.6	15.6
10-20	60	19.1	34.7
20-30	85	27.1	61.8
30-40	53	16.9	78.7
40-50	49	15.6	94.3
50 and over	18	5.7	100.0
Total	314	100.0	

9. 월간 가족지원액수

1개월간의 자기 수입 중에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1~2만원인 군은 26.7%, 2~3만원군 19.1%, 4~5만원군 17.2%, 1만원이하군 13.1%, 3~4만원군 6.1%로 대부분의 특수업태부들은(82.2%) 액수의 다소 를 막론하고 자기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혀 지원 하지 않고 있는 자들도 17.8%나 있었다(표 9 참조).

Table 9.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Monthly Supporting Expenses to Their Family

Supporting expenses	No.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None	56	17.8	17.8
Under 10	41	13.1	30.9
10-20	84	26.7	57.6
20-30	60	19.1	76.7
30-40	19	6.1	82.8
40-50	54	17.2	100.0
Total	314	100.0	

10. 월간 저축금

1개월간의 자기들 수입 중에서 저축하는 액수가 5~6만원인 군이 22.3%, 1만원이하 18.2%, 3~4만원 17.5

%, 1~2만원 14.0%, 2~3만원 11.8%, 4~5만원 7.3%이며 전혀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도 8.9%나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수업체부들은 저축을 하고 있었다(표 10 참조).

Table 10.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Monthly Savings

Savings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None	28	8.9	8.9
Under 10	57	18.2	27.1
10-20	44	14.0	41.4
20-30	37	11.8	52.9
30-40	55	17.5	70.4
40-50	23	7.3	77.7
50-60	70	22.3	100.0
Total	314	100.0	

11. 채무관계

조사당시 채무가 3만원이하인 자는 5.1%, 3~6만원 3.5%, 12~15만원 1.6%, 9~12만원 1.0%였으나 채무가 전혀 없는 자가 86.6%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Table 1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ize of Debt (Unit:1,000 Won)

Debt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None	272	86.6	86.6
Under 30	16	5.1	91.7
30-60	11	3.5	95.2
60-90	7	2.2	97.4
90-120	3	1.0	98.4
120-150	5	1.6	100.0
Total	314	100.0	

12. 기호품

음주를 즐기는 군은 20.4%,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는 55.7%로서 객연자가 음주자들 보다 많은 편이었다.(표 12 참조).

Table 1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tatus of Luxury

Content	Drinking		Smoking	
	Like	Dislike	Smoking	Non-smoking
No. of Respondents	64	250	175	139
Percent	20.4	79.6	55.7	44.3

13. 특수업체부가 된 동기

윤락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자진하여 윤락되었다는 자가 45.2%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빈곤 41.7% 가정불화 6.4%, 결혼생활실패 2.9%, 소개소의 알선 1.9%, 친구의 유혹과 실연이 동기가 되었다는 자는 각각 1.0%였다(표 13 참조).

Table 13.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Motive of Falling into the Ruin

Causes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Her own accord	142	45.1
Through employment agency	6	1.9
By ruined by friends	3	1.0
Domestic troubles	20	6.4
Disappointed love	3	1.0
Economical causes	131	41.7
Failure of marriage	9	2.9
Total	314	100.0

Table 14.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pre-arranged Period of Their Occupation

Prearranged period	No.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1 year	63	20.1	20.1
2 years	183	58.3	78.4
3 years	52	16.6	95.0
4 years	8	2.5	97.5
5 years	8	2.5	100.0
Total	314	100.0	

14. 특수업체부에 종사할 예정기간

향후 특수업체부로서 종사할 예정기간이 2년정도인

자가 58.3%, 1년 20.1%, 3년 16.6%, 4년과 5년은 각각 2.5%로서 조사대상자의 95.0%가 3년 이하를 희망하고 있었다(표 14 참조).

15. 특수업태부 경력

특수업태부로 종사한 경력이 1~2년은 57.0%, 2~3년 24.9%, 3~4년 8.3%, 4~4년 5.7%, 5년이상 2.2%, 1~12개월은 1.9%로 경력이 1~2년인 자가 제일 많았으며 그들의 83.8%가 3년이하의 경력자들이었다(표 15 참조).

16. 월간 접대사항

1개월간 접대하는 인원수는 5~10명 58.0%, 10~15

Table 15.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Employed Periods of Ruin

Periods	No.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1-12 months	6	1.9	1.9
1-2 years	179	57.0	58.9
2-3 years	78	24.9	83.8
3-4 years	26	8.3	92.1
4-5 years	18	5.7	97.8
5 years and over	7	2.2	100.0
Total	314	100.0	

Table 16.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Number of Monthly Entertainment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Cumulative Percent
Under 5	33	10.5	10.5
5-10	182	58.0	68.5
10-15	59	18.8	87.3
15-20	22	7.0	94.3
20 and over	18	5.7	100.0
Total	314	100.0	

Table 17.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tatus of Venereal Disease and Pulmonary Tuberculosis

No.	Venereal disease		Pulmonary tuberculosis	
	Gonorrhoea	Syphilis	Minimal active	Moderate advanced
Number of Respondents	25	5	4	1
Percent	8.0	1.6	1.2	0.3

명 18.8%, 5명이하 10.5%, 15~20명 7.0%, 20명 이상이 5.7%로 월간 5~10명을 접대하는 군이 제일 높은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6 참조).

17. 성병 및 폐결핵 감염상태

임균에 감염되어 있는 자는 25명으로 그 이환율은 8.0%이고 매독에 감염된 자는 5명으로 1.6%였다.

폐결핵에 이환되어 있는 자는 5명(1.6%)으로 이들을 병소범위별로 보면 경증 4명(1.2%), 중등증 1명(0.3%)이었다(표 17 참조).

IV. 고 안

성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현재 증가 일로에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건상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성병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임증, 실명 기타 후유증등으로 불구를 초래하여 개인의 건강저해와 노동력감소 등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 저해인자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병의 주요 감염원이 윤락여성으로 지적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정부에서는 특수업태부 뿐만 아니라 윤락행위자는 전원 등록조치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업태부들의 연령분포는 20~34세 사이로 23~25세군이 36.6%이고 30세 이전이 95.2%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⁷⁾은 부산 송도지구 조사성적에서 연령분포는 18~29세이고 22~25세군이 72.8%라 하였으며, 문¹⁰⁾은 경북지역의 조사성적에서 연령분포는 19~38세사이고 21~25세 사이가 66.6%였고, 여¹²⁾는 19~23세 사이가 48.6%로 이들의 성적은 저자의 성적과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직업적 매음행위의 주 연령층이 20~25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졸업정도 이하가 47.2%, 중학교 졸업이 29.3%, 고등학교 졸업이 5.7%로서 양⁷⁾은 국민학교 졸업이 80.7%, 문¹⁰⁾은 국민학교 졸업 이하가 89.0%로서 저자의 성적이 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은 저자의 조사대상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
업태부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이해등으로 인하여
교육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업태부 전락되기 전의 직업으로는 무직이 34.5
%이고 나머지는 싸롱접대부, 호스데스, 다방종업원,
식모, 미용사등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종
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문¹⁰⁾이 남성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직업일수록 윤락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한것과 일치하고 있었다.

출신도별 분포상태는 경상도가 37.9%, 부산이 26.1
%로 양⁷⁾의 경남 24.0%, 경북 19.0%, 부산 12.0%라
는 보고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동태가
부산, 경남, 경북등지와 거리상 매우 인접하여 있기 때
문일 것이다.

특수업태부들의 가정환경조사에서 홀어머니인 자가
43.9%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모성애
가 자녀교육을 그릇되게 하여 윤락하게 된 원인도 되겠
지만 어머니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윤락화되었을 가능성
도 있으리라 믿는다.

자기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특수업태부가 82.2%
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부
담능력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음
행위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욕구자와 상대여성 즉 경
제적 욕구자간의 교환조건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한다. 이같은 교환조건으로 수입되
는 월간 수입금은 최저 5만원이하에서 최고 25만원까지
폭 넓은 분포를 하고 있으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
입되는 자가 46.2%로 제일 많은 편이었다. 황¹³⁾이 부
산 원월동에서 조사한 성적에 의하면 1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3만원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고 한다.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¹⁴⁾ 산업장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중 제일 높은 업종은 석유정제업으로
149,960원이고 제일 낮은 업종은 가구제품제조업으로서
31,060원이라고 한다. 저자의 성적에 황¹³⁾이나 산업장
근로자들의 평균임금¹⁴⁾보다 높은 것은 관광객을 상대
로 하는 특수업태부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관계일 것
으로 생각된다.

월간 잡비지출액은 1만원이하에서 5만원이상으로 월
2~3만원 지출자가 27.1%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잡비 지출액은
18,650원¹⁵⁾이므로 한세대당 지출액보다 특수업태부 한
사람의 월지출액이 훨씬 고액인 것은 이들 생활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특이하므로 화장비, 피복비등을 많이 필
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일 것이다.

매월 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은 1만원 이하에서 5만원
사이며 1~2만원군이 26.7%, 2~3만원이 19.1%로 우
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값 29,390¹⁶⁾원
에 육박하고 있었다.

매월 저축가능액은 1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5~6만
원 저축할 수 있는 특수업태부가 22.3%로 가장 높은
율을 점하고 있었으며 황¹³⁾의 조사성적은 1만원에서 5
만원사이로 월 1~2만원 정도의 저축성적보다 저축금
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입이 좋다는 것에 연유할 것이
다.

부채를 지고 있는 업태부는 13.4%로서 부채액은 3만
원이하에서 15만원사이고 3만원 이하인자가 5.1%로서
수위를 점하고 있었다. 86.6%가 전혀 부채금이 없을
정도로 수입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있는 특수
업태부들은 그 생활양식이 다른 업태부들과 차이가 있
어 지출이 많은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업태부들의 기호성은 술을 마시는 자가 20.4%,
담배를 피우는 자가 55.7%로 황¹³⁾의 성적 31.9%와
66.6%에 비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 가정부인들보
다 기호성이 높은 것은 Watt등¹⁷⁾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 업태부들은 열등의식의 소유자들이고 또한 언제나
술과 담배를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런 기호품에 습
관화되기 용이한 환경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수업태부가 된 동기는 경제적빈곤이 41.7%로 노출¹⁷⁾
의 57.1%, 여¹²⁾의 65.5% 성적보다 약간 낮은 율을
점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었다.

향후 계속 특수업태부로 종사할 예정기간은 조사대상
자의 95%가 3년이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
의 직업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특수업태부의 경력이 1~2년인자가 57.0%로 가장 고
율을 점하고 있는 것은 특수업태부로 종사할 예정기간
을 3년이하로 희망하고 있는 이유와 같은 것으로 생각
된다.

매월 접대하는 대상인원이 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의
범위로 5~10명이 58.0%로 최고율을 점하고 있어 상대
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하여 수입이 높은 것은 외
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군의 양성율이 8.0%로 양⁷⁾의 2.89%, 문¹⁰⁾의 31.0
%의 성적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Gangarosa의¹⁸⁾,
Roiron¹⁹⁾등이 도말염색만으로는 임군진단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독혈청반응 양성율은 1.6%로 양⁷⁾의 24.6%, 유²⁰⁾

의 양공주 16.9%, 첩태부 10.7%, 문¹⁰⁰의 10.5%의 성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사 연도와 조사 대상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자의 조사대상인 특수업태부는 주기적인 성병검진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폐결핵환자는 1.6%로 결핵협회 부산지부가 엑스선 순회검진결과 활동성결핵이 1.3%²¹⁾라고 보고한 성적과 일치하고 있었다.

V. 요 약

1976년 6월 1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부산동래지역의 관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업태부 31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조사를 하여 얻은 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업태부들의 연령은 20세에서 34세사이로 23~25세군이 36.6%이고 31세이전이 95.2%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교육정도별로는 국민학교 졸업정도 이하가 47.2% 중학교졸업이 29.3%, 고등학교 졸업이 5.7%의 순위였다.

3. 특수업태부 전의 직업은 무직이 34.5%, 싸롱접대부 24.2%, 호스테스 14.3%였다.

4. 출신도별은 경상도가 37.9%, 부산이 26.1%로 64.0%가 경상도와 부산 출신이었다.

5. 홀어머니만 있는 자가 43.9%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82.2%의 특수업태부들이 자기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6. 매월 수입은 5~25만원사이로 월수입이 5~10만원 인자는 46.2%에 달하였고 매월잡비지출액은 2~3만원이 27.1%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7. 가족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5만원사이로 1~2만원군이 26.7%이고 매월 저축금은 1만원에서 6만원사이로 5~6만원을 저축하는 자는 22.3%에 달하고 있었다.

8. 특수업태부들의 기호성은 음주하는 자가 20.4%, 껌연자가 55.7%였다.

9. 특수업태부로 윤락된 동기는 경제빈곤에 의한 것이 41.7%이고 향후 3년간 본직에 계속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95.0%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0. 매월 접대하는 인원이 5~10명인자는 58.0%였다

11. 임균의 양성자는 8.0%, 매독반응 양성자 1.6%, 폐결핵환자도 1.6%였다.

REFERENCES

1. William L. Fleming: *Venereal Diseas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0th Ed.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1973.
2. Mahoney, J.F., Arnold R.C., Harrus A.: *Penicillin treatment of early syphilis, A Preliminary Report, USPHS, Venereal Dis. Inform. 24:355, 1943.*
3. Brown W.T., Donohue J.F., Axrick N.W., Blount J.U.: *Syphilis and other venereal disease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Monographs, America Public Health Associ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4.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trol of gonococcal infections, WHO chron 18:14, 1964.*
5.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work in endemic trepanonematoses and venereal infections, 1948-1963, 2, venereal syphilis, W.H.O. chron 18: 45I, 1964.*
6. American Social Health Association: *Today's VD control problem 1971, New York, ASHA, 1971.*
7. 양학도 외: 부산진구 윤락여성에 대한 현황 및 성병의 역학적 고찰, 대한미생물학회지 제3권 제1호 1968.
8. 최익환, 서희수: 부산진구 윤락여성의 매독 혈청반응에 대한 고찰, 종합의학, 10:6, 1965.
9. 양학도 외: 1965년 부산진구 윤락여성의 매독혈청 반응에서 본 매독의 역학적 고찰 부산의대잡지, 제6권 제1호 1966.
10. 文九鉉: 윤락여성에 대한 현황 및 성병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논문집, 8:1, 1964.
11. 보건사회부: 성병관리 방침, 1976년도 성병관리 사업지침, 보건사회부, 서울, 1976.
12. 여경규: 의학다이제스트, 3:235, 1961 (Cited from 10).
13. 황인수 외: 부산진구 윤락여성의 현황, 부산의대잡지, 제12권 제1호, 1972.
14. 노동청: 광업, 제조업, 월평균 임금, 노동, 제10권 제5호 1976.
15. 이용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한국 통계월보, 제18권 제11호, 1976.

16. Watt, G.O. and Wilson R.R. : *Canada Med. J.* 53:119, 1945.
 17. 雪吹 : 臨床皮泌, 6:664, 1952 (cited from 10)
 18. Gangarosa, E.I. and Carry, S.G. : *JAMA*, 173:1808, 1960.
 19. Roiron, N.A. 1944: *Amer. J. Public Health*, 34:159, 1944.
 20. 유준 외 : 엽태부의 매독혈청반응 및 매독의 혈청학적 진단을 위한 신 "메스트플랜"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지, 6:11, 1963.
-